

선천성심장병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이혜정¹ · 유일영² · 김소선²

¹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중환자실, ²연세대학교 간호대학

Relationship of Children's Perception of Mothers' Parenting Attitude to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in Children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Hye-Jung Lee¹, Il-Young Yoo², So-Sun Kim²

¹Coronary Care Unit of Seoul Asan Medical Center Heart Hospital

²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of mothers' parenting attitude as perceived by the child to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of school age children with Tetralogy of Fallot (TOF). **Methods:** In this stud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to collect the data. The participants included 38 children who were registered in a pediatric cardiology clinic in one tertiary medical center. Their ages were between 11 and 15 years. They were diagnosed with TOF, and had no other congenital problems.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 to November 30, 2009. After obtaining telephone consent from the mothers and children, questionnaires were mailed to 64 participants and 38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Data were analyzed using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WIN 15.0 version.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with TOF. **Conclusion:** Children who perceive their mothers' parenting attitude to be more positive also report higher self-esteem and better school adjustment. These findings are similar to other studies done with healthy school age children. However, parents of children with TOF may require different parenting approaches to foster positive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Key words: Heart Diseases, Self-esteem, Social Adjustment, Parenting

서론

선천성 심장병은 신생아 1,000명당 8명 정도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고되는 선천적 기형 중 가장 많으며 20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에서 두 번째로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다(The Korean Heart Foundation [KHF], 2008). KHF (2008)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심장병 치료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하여 선천성 심장병 아동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연간 4,800건 이상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불어 선천성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2%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청색증형 선천성 심장

병을 가진 아동의 경우,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약물 복용과 관리가 요구되고, 많은 경우에 심부전, 부정맥, 호흡곤란, 통증, 피로, 청색증 등의 합병증을 경험하게 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학교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의 학교 생활 유지와 적응은 단순히 심장병과 관련된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가 있는데(Garson, Williams, & Reckless, 1974)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의 어머니들은 영유아기를 거쳐 아동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수술과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증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자녀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주요어: 선천성심장병,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This research is a part of master's thesis of Hye Jung Lee from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Address reprint requests to: Il-Young Yoo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250 Seongsan-ro, Seodaemun-gu, Seoul 102-752, Korea

Tel: +82-2-2228-3273 Fax: +82-2-392-5440 E-mail: iyoo@yuhs.ac

투고일: 2011년 2월 1일 / 1차수정: 2011년 4월 1일 / 2차수정: 2011년 4월 8일 / 게재확정일: 2011년 4월 12일

(Lee & Kim, 2001), 이러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한다(Cho et al., 2005). 그리고 잦은 수술과 입원으로 인한 분리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 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동을 거부할 수도 있고, 혹은 아동을 과잉 보호하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고 한다(Cho, 2004).

또한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학령기뿐 아니라 개인의 성장 발달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Cho et al., 2005; Weitzman, 1984) 발달심리학자인 Erickson (1980)에 의하면 학령기에 아동은 또래와의 경쟁을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고, 학습활동에 근면성을 발휘하며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은 이러한 학령기의 발달과업을 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심장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학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정체성을 갖게 된다(Cho, 2004). 그러므로 선천성 심장병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며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선천성 심장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의료기술은 더욱 발달할 것이고 복합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동의 생존율도 더 높아질 것이므로 이러한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동이 약물 치료와 합병증으로 인해 부모가 역할 변화와 가중된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Knafle & Zoeller, 2000)나 질병이 없는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Bronstein et al., 1996; Jang & Park, 2008)는 있지만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이 또래들과 같은 학교활동을 할 수 없고 학교생활 적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나 어머니를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선천성 심장병인 Fallot 4징 진단을 받은 아동이 인지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대상자

본 연구의 근접 모집단은 서울시 소재의 한 종합병원에 등록된 선천성 심장병 중 청색증형으로 가장 흔한 질환인 Fallot 4징을 진단받고 다른 기형이 동반되지 않은 만 11-15세의 학령기 아동 전수 197명이었다. 이 아동 중 학령기 이전에 선천성 심장병과 관련된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고, 수술을 받은 후 외래를 통해 추적 관찰을 받고 있거나 받았으며 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아동 중 어머니와 아동 모두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Schaefer의 양육태도 모델을 근거로 Park (1996)이 개발한 양육행동 척도를 Kim과 Chung (2004)이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간호학 교수 2인의 타당도 검증을 거쳐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아동이 인지한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척도는 온정/수용(10문항), 허용/방임(10문항), 그리고 거부/제재(10문항)의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채점 문항이 있다. 총 30-120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 는 개발 당시 Park (1996)의 연구에서 .85-.88 범위였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측정을 위해 Coopersmith (1981)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I)를 Sang, Kim과 Doh (1999)의 논문에서 사용한 총 25문항의 4점 척도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비하(5문항), 타인과의 관계(7문항), 지도력과 인기(6문항), 불만과 불안(7문항)의 네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채점 문항이 있다. 총 25-100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 는 개발 당시의 연구에서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Cho (1995)가 제작한 총 50문항의 학교생활 적응 진단 도구를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선천성 심장병 아동에게 부적합한 설문 항목을 제외하고, 몇 개의 항목은 변화된 학교생활과 선천성 심장병 아동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한 총 25문항 설문지를 간호학 교수 2인에게 타당도를 확인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담임교사와의 관계(5문항), 교우관계(5문항), 학습활동(5문항), 규칙준수(5문항), 그리고 학교행사 참여(5문항)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5-100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에 Cho (1995)의 연구에서 Cron-

bach's $\alpha = .9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기관인 서울시 소재 한 종합병원의 임상연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외래에 등록된 Fallot 4장을 진단받은 학령기 아동 중 다른 질병이나 기형이 동반되지 않은 아동 전수를 확인하였다. 아동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설문 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를 한 아동에게 설문지와 소정의 답례품을 반송용 우표를 붙인 회수용 봉투와 함께 넣어 전화 동의 시에 확인된 주소로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전화 연락을 통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한 인

원은 전수 197명 중 64명(남학생 40명, 여학생 24명)이어서 동의율은 32.5%이었다. 설문지를 보낸 64명 중 실제로 설문지에 응한 총 인원은 38명(남학생 22명, 여학생 16명)으로 응답률은 59.4%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고, 구체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실수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8)

Variable	Category	Number (%)	Mean \pm SD	Minimum	Maximum
Gender	Male	22 (57.9)			
	Female	16 (42.1)			
Grade	4th	11 (28.9)			
	5th	11 (28.9)			
	6th	7 (18.4)			
	7th	3 (7.9)			
	8th	6 (15.4)			
	Number of siblings			2.3 \pm 0.6	1
Birth order			1.8 \pm 0.8	1	4
Number of family members			3.7 \pm 1.1	2	7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Grandfather	6 (15.8)			
	Grandmother	11 (28.9)			
	Parents	38 (100)			
	Elder brother	9 (23.7)			
	Elder sister	16 (42.1)			
	Younger brother/sister	18 (47.4)			
Age of the father (year)			43.8 \pm 4.7	35	58
Age of mother (year)			41.0 \pm 4.5	35	57
Education of the father	High school graduation or low	16 (42.1)			
	University graduation or higher	22 (57.9)			
Education of the mother	High school graduation or low	23 (60.5)			
	University graduation or higher	15 (39.5)			
Mother's occupational status	Having a job	22 (57.9)			
	Not having a job	16 (42.1)			
Age of the first heart surgery (month)			12 \pm 0.8	0	36
	< Age of 12	9 (23.7)			
	Age of 12	21 (55.3)			
Number of heart surgery			1.4 \pm 0.7	1	4
	\geq Age of 24	8 (21.0)			
	1	27 (71.1)			
Current outpatient follow-up	> 1	11 (28.9)			
	Yes	24 (64.2)			
Number of friends	No	14 (36.8)			
			11.3 \pm 12.5	2	57
After school: private academy	Yes	30 (78.9)			
	No	8 (21.1)			
After school: play with friends	Yes	10 (26.3)			
	No	28 (73.7)			
After school: home alone	Yes	10 (26.3)			
	No	28 (73.7)			

셋째, 주요변수 간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선천성 심장병 아동과 가족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Table 1), 성별은 남아가 22명(57.9%)이었고 여아가 16명(42.1%)이었으며, 학년은 초등학교생이 29명(67%)이었고, 중학생이 9명(23%)이었다. 대상자의 형제자매 수는 평균 2.3 (± 0.6)명이었다. 대상자 모두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대상자 아버지의 나이는 평균 43.8 (± 4.7)세였고, 어머니의 나이는 평균 41.0 (± 4.5)세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22명(57.9%)으로 고등학교 졸업 16명(42.1%)보다 많았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23명(60.5%)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 15명(39.5%)보다 많았다.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는 22명(57.9%)이었다.

처음 심장수술을 한 나이의 범위는 최소 출생 즉시에서 최대 36개월이며 평균 12.0 (± 0.8)개월이었고, 절반 이상인 22명(55.3%)이 12개월에 첫 수술을 했으며, 12개월 전에 한 경우가 9명(23.7%), 24개월 이후에 한 경우가 8명(21.0%)이었다. 심장 수술의 횟수는 최소 1회에서 최대 4회이며 평균 1.4 (± 0.7)회였다. 1회 수술을 한 경우가 27명(71.1%)으로 가장 많았으며 3회 수술을 한 경우인 2명과 4회 수술을 한 경우 1명이 있었다. 현재 1년 단위로 외래 방문을 한다고 답한 경우가 24명(64.2%) 이상이었고, 외래 방문을 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14명(36.8%)이었다.

친한 친구의 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7명으로 평균 11.3 (± 12.5)명이었다. 방과 후 활동은 학원에 가는 경우가 30명(78.9%)으로 학원에 가지 않는 경우인 8명(21.1%)보다 많았으며, 방과 후 친구를

만나는 아동은 10명(26.3%)이었고 방과 후 집에 혼자 있는 아동이 10명(26.3%)이었다.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평균 점수는 120점 만점에 93.3점(± 8.6)이었고 하위 영역별 점수는 온정/수용 영역이 40점 만점에 29.6 (± 5.1), 허용/방임 영역이 40점 만점에 32.2 (± 3.5), 거부/제재 영역이 40점 만점에 31.5 (± 5.0)이었다.

자아존중감은 100점 만점에 68.5 (± 8.4)이었고 하위 영역별 점수로는 자기비하가 20점 만점에 14.0 (± 2.6), 타인과의 관계가 28점 만점에 18.5 (± 2.4), 지도력과 인기가 24점 만점에 15.9 (± 3.0), 불안과 불안이 28점 만점에 20.2 (± 3.0)이었다.

학교생활 적응은 100점 만점에 70.3 (± 8.9)이었고 하위 영역별 점수로는 담임교사와의 관계가 20점 만점에 13.2 (± 3.0), 교우관계가 20점 만점에 15.1 (± 2.2), 학습활동이 20점 만점에 13.6 (± 2.1), 규칙준수가 20점 만점에 15.2 (± 2.2), 학교행사 참여가 20점 만점에 13.2 (± 2.6)이었다.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은 순 상관관계($r = .373, p = .021$)를 나타냈다. 즉,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높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 순 상관관계($r = .496, p = .002$)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지한 아동이 학교

Table 2. Sub-categories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N=38)

Variable		Mean ± SD	Item number	Range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Total	93.3 ± 8.6	30	30-120
	Sub-category			
	Nurturing/Accepting	29.6 ± 5.1	10	10-40
	Permissive/Non interfering	32.2 ± 3.5	10	10-40
Self-esteem	Rejecting/Restrictive	31.5 ± 5.0	10	10-40
	Total	68.5 ± 8.4	25	25-100
	Sub-category			
	Self-depreciation	14.0 ± 2.6	5	5-20
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 with others	18.5 ± 2.4	7	7-28
	Leadership and popularity	15.9 ± 3.0	6	6-24
	Discontent and anxiety	20.2 ± 3.0	7	7-28
	Total	70.3 ± 8.9	25	25-100
	Sub-category			
	Relationship with teacher	13.2 ± 3.0	5	5-20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15.1 ± 2.2	5	5-20
Academic motivation	13.6 ± 2.1	5	5-20	
Rule observation	15.2 ± 2.2	5	5-20	
Participate in school activities	13.2 ± 2.6	5	5-20	

생활 적응도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도 순 상관관계($r = .553, p = .000$)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의 하위 요인 간의 관계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에 포함된 각각의 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는 Tables 4, 5와 같다.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인 타인과의 관계와 순 상관관계($r = .390, p = .016$)를 가지며, 허용/방임적 양육태도는 타인과의 관계와 역 상관관계($r = -.368, p = .023$)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제재적인 양육태도는 자기비하와 순 상관관계($r = .345, p = .034$), 타인과의 관계와 역 상관관계($r = -.398, p = .013$), 그리고 불만과 불안과는 순 상관관계($r = .374, p = .021$)를 보였다.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 영역인 교우관계와 순 상관관계($r = .333, p = .041$), 학습활동과 순 상관관계($r = .336, p = .039$), 규칙준수와 도 순 상관관계($r = .426, p = .008$)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태도는 교우관계와 역 상관관계($r = -.350, p = .031$)를 보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비하와 학습활동은 역 상관관계($r = -.466, p = .003$)를 보였고, 타인과의 관계는 규칙준수와 순 상관관계($r = .360, p = .026$), 학교행사 참여와도 순 상관관계($r = .337, p = .039$)를 가졌으며, 지도력과 인기는 교우관계와 순 상관관계($r = .470, p = .003$), 학습활동과 순 상관관계($r = .502, p = .001$), 규칙준수와도 순 상관관계($r = .366, p = .024$), 학교행사 참여와도 순 상관관계($r = .516, p = .0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만과 불안은 학교생활 적응 중 학습활동과 역 상관관계($r = -.612, p = .000$), 학교행사 참여와 역 상관관계($r = -.470, p = .003$)를 나타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N=38)

Variable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i>r</i> (<i>p</i>)	Self-esteem <i>r</i> (<i>p</i>)	School adjustment <i>r</i> (<i>p</i>)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1		
Self-esteem	.373 (.021)	1	
School adjustment	.496 (.002)	.553 (<.001)	1

논 의

본 연구는 학령기의 선천성 심장병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파악하여 선천성 심장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었다.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Table 4. Correlation among Sub-categories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N=38)

	Sub-categorie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Nurturing/Accepting <i>r</i> (<i>p</i>)	Permissive/Non interfering <i>r</i> (<i>p</i>)	Rejecting/Restrictive <i>r</i> (<i>p</i>)
Self-esteem	Self-depreciation	.039 (.818)	.161 (.335)	.345 (.034)
	Relationship with others	.390 (.016)	-.368 (.023)	-.398 (.013)
	Leadership and popularity	.162 (.333)	-.016 (.925)	.281 (.087)
	Discontent and anxiety	.173 (.300)	-.056 (.738)	.374 (.021)
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 with teacher	.271 (.100)	-.009 (.959)	.118 (.481)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333 (.041)	.092 (.583)	-.350 (.031)
	Academic motivation	.336 (.039)	.272 (.099)	.320 (.050)
	Rule observation	.426 (.008)	.217 (.190)	.209 (.207)
	Participate in school activities	.309 (.059)	.006 (.972)	.151 (.367)

Table 5. Correlation among Sub-categories of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N=38)

	Sub-categories	Self-esteem			
		Self-depreciation <i>r</i> (<i>p</i>)	Relationship with others <i>r</i> (<i>p</i>)	Leadership & popularity <i>r</i> (<i>p</i>)	Discontent & anxiety <i>r</i> (<i>p</i>)
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 with teacher	.017 (.919)	.190 (.252)	.122 (.466)	.272 (.099)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089 (.597)	.155 (.352)	.470 (.003)	.246 (.136)
	Academic motivation	-.466 (.003)	.298 (.070)	.502 (.001)	-.612 (<.001)
	Rule observation	.207 (.212)	.360 (.026)	.366 (.024)	.320 (.050)
	Participate in school activities	.249 (.131)	.337 (.039)	.516 (.001)	-.470 (.003)

(Cha, Choi, & Doh, 2010; Ha & Lee, 2009; Jung & Moon, 2007)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진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였다. 본 연구 결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왔고, 또한 아동이 학교생활 적응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한다는 결과는 자주 보고되고 있다(Cha et al., 2010; Lee & Kim, 2005; Lee, Lee, & Han, 2009; Park, 1996; Wang & Kim, 2004).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된다고 하겠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 영역별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온정/수용적이라고 보고한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인 타인과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용/방임적 양육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와 Choi (2003)의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인 타인과의 관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도 일치한다.

거부/제재적 양육태도를 높게 보고한 아동일수록 자기비하 점수가 높고, 타인과의 관계 점수가 낮았으며, 불만과 불안이 높게 보고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 영역 중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가장 높게 역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은 거부/제재적 영역이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연구(Jeong, 2010; Lee, 2008; Park, 1996)결과와 같은 맥락을 가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온정/수용적 점수를 높게 보고한 아동일수록 학교생활 적응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다고 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Cha et al., 2010; Jung & Moon, 2007; Lee & Tak, 2004).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온정/수용적이라고 인지한 아동이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갖고, 학습활동이나 학교에서의 규칙준수도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Cha 등(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거부/제재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거부/제재적이라고 보고한 아동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온정/수용적이라고 보고한 아동과 마찬가지로 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만, 부모의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한 아동이 친구들과의 관계에 더 의미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과 관련된 하부 개념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동이 자기비하 점수를 낮게 보고 할수록 학습활동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타인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규칙을 준수하고 학교행사에 잘 참여하고, 또한 아동이 지도력이 있고 또래에

서 인기가 있을수록 교우관계가 좋고 학습활동이 향상되며 규칙 준수와 학교행사 참여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만과 불안은 학교생활 적응 중 학습활동과 학교행사 참여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아동이 불만과 불안감이 낮을 때 학습활동이 향상되고 학교행사에도 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므로 어떤 요인이 선행이 되었거나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지만, Lee와 Jeong (2004)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는 교사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학교생활 적응의 다른 모든 영역과 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Moon & Sim, 2001)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선천성심장병을 가진 아동의 자존감, 학교적응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아동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동을 가진 부모는 일반아동을 양육하는 것과는 다른 양육방법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양육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신체적으로 취약한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나, 아동의 추후관리에 지친 부모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아동의 발달 기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사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과 학교생활적응을 도와줄 수 있고,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키울 수 있도록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를 서울시 소재의 종합병원 한 곳에서 청색증형 Fallot 4형을 진단받은 아동 38명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우편을 통한 자료 수집을 한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를 모든 선천성 심장병 아동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조심스러운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우편을 통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다른 관련 요인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선천성 심장병인 Fallot 4형 진단을 받은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나 부모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지한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Bronstein, P., Duncan, P., D'Ari, A., Pieniadz, J., Fitzgerald, M., Abrams, C. L., et al. (1996). Family and parenting behaviors predicting middle school adjustment: A longitudinal study. *Family Relations, 45*, 415-426.
- Cha, S. H., Choi, M. K., & Doh, H. S. (2010). The pathways from maternal parenting behavior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4), 125-137.
- Cho, J. S. (1995). *The Relation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tress and School-Life Adjustment*.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 Cho, K., Song, J., Yoo, I., Park, I., Park, E., Kim, M., et al. (2005). *Nursing care of children* (3rd ed.). Seoul: Hyunmoon.
- Cho, K. M. (2004). Child rearing experience among mothers of children with severe CHD.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3*, 454-466.
- Coopersmith, S.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2nd Ed.). Palo Alto, Calif: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Erickson, E.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NY: W.W. Norton & Company.
- Garson, A. J., Williams, R., & Reckless, J. (1974). Longterm follow-up of patients with tetralogy of Fallot: Physical health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diatric, 85*, 429-433.
- Ha, M. S., & Lee, S. B. (2009). The influence of the children-perceived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self elasticity to adjust to school lif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8*, 247-258.
- Jang, Y. A., & Park, J. H. (2008).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2), 69-85.
- Jeong, M. S. (2010). The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 on adolescent's self-esteem. *The Korean Youth Culture Forum, 25*, 140-170.
- Jung, M. Y., & Moon, H. J. (2007). Relevant variables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5), 37-54.
- Kim, M. J., & Chung, M. J. (2004).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their perceptions of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5), 11-27.
- Knafle, K., & Zoeller, L. (2000). Childhood chronic illness: A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experiences. *Journal of Family Nursing, 6*, 287-302.
- Lee, E. J., & Kim, K. B. (2001). A study on emotional status, physical status, and family support of parents with cardiac disease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7*, 267-279.
- Lee, E. Y., & Kim, K. H.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djustment in school lif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0*, 105-119.
- Lee, J. H., & Tak, J. M. (2004).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erception of the effects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Journal of Dongsbin University, 14*, 209-227.
- Lee, J. R. (2008). An initial investigation into self-control and self-esteem as mediators in the link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the externalizing symptom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5*(2), 87-102.
- Lee, K. O., Lee, M. H., & Han, B. H. (2009). The effect of the parents' nurturing attitude on personalities and school adaptations. *Korean Business Review, 2*, 181-201.
- Lee, M. A., & Jeong, H. U. (2004). A study on the correlation of social support perceived and self-esteem of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Mokpo National University, 16-17*, 123-137.
- Lee, S., & Choi, J. M. (2003). Influences of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s and peer acceptance on children's self esteem. *Journal of The Korean Economics Association, 41*(2), 31-42.
- Moon, E. J., & Sim, H. O. (2001).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friendship quality, self-perception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4), 99-113.
- Park, Y. Y. (1996). Research: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 315-328.
- Sang, M. H., Kim, J. S., & Doh, H. S. (1999). The relations of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perceived by children to their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11), 115-124.
- The Korean Heart Foundation (2008). The yearly report of cardiac surgery in Korea. Retrieved August 20, 2009, from <http://www.heart.or.kr/>
- Wang, H. O., & Kim, K. W.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attachment stability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1*(2), 77-88.
- Weitzman, M. (1984). School and peer relations. *The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1*, 59-70.